

■ 카라이프

겨울철 차량 관리 이렇게...

자동차 소식

냉각수, 생수보다 수돗물이 부식방지 효과

납은 타이어는 빙판·눈길 대형사고 위험 온도 내려가면 배터리 자연방전 될 수도

겨울 문턱이다. 자동차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 방치하면 자동차도 동상에 걸리고 만다. 특히 겨울철 고장이나 파손은 치명적이다. 자동차 정비는 꾸준히 해야 하지만 자동차의 수명이나 상태는 얼마나 겨울을 잘 지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차량을 미리 점검해두면, 차량의 성능을 오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부품 파손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 부동액·냉각수 50대 50으로

자동차의 동상 예방을 위해서는 초겨울에 부동액을 점검해야 한다. 부동액은 냉각수를 얼지 않게 하고, 라디에이터 및 부품의 부식을 방지하기 때문에 차량 점검시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보통 냉각수 색깔은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붉게 녹물이 우러나거나 변색됐다면 새 부동액으로

교환해야 한다. 요즘은 사계절용 부동액을 많이 사용하지만, 만일 냉각수로 물을 많이 보충했다면 부동액 농도가 낮아지게 된다. 겨울철에는 부동액과 냉각수의 비율을 50대 50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냉각수는 생수가 아닌 수돗물을 사용해야 관련 부품의 부식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부동액 원액을 지나치게 많이 주입하면 점도가 높아져 엔진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윈도 워셔액은 평소의 경우 불과 절반씩 섞어 쓰지만 겨울철에는 원액을 그대로 사용해야 얼지 않는다. 눈길에 대비해 윈도 워셔액은 가급적 용기에 가득 채우는 것이 좋다.

■ 타이어, 적정 공기압보다 약간 낮게

겨울철 안전운행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스노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이다. 여의치 않다면 타이어 마모 상태라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납은 타이어는 겨울철 빙판길, 눈길 운행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체

해야 한다.

미끄러운 노면을 안정적으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공기압보다 약간 낮게 공기압을 유지해 타이어의 마찰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타이어 공기압을 지나치게 낮추면 연비가 떨어지고 마모가 심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 히터에서 냄새나면 필터 교체해야

겨울철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히터는 쾌적한 주행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히터를 켜면 불쾌한 냄새가 나고 통풍구에서 먼지가 날린다면 필터를 교체해야 한다. 이상이 없더라도 1만~1만5000km 주행 후에는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 또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거나 찬 바람만 나오는 경우에는 온도조절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서비스센터나 정비소를 방문해 점검을 받도록 한다. 뒷유리 열선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

■ 시동 걸리지 않는다면 배터리의 의심을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우선 배터리의 이상을 의심해야 한다. 배터리는 온도가 내려가면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자연방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지역에서는 배터리를 포포나 형광 등으

로 싸두면 배터리의 완전 방전을 줄일 수 있다.

배터리의 충전 상태는 배터리 상단 부분에 있는 점검창을 보면 알 수 있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 점검창이 녹색으로 표시되면 정상이다. 반면 녹색 이외에 다른 색이 표시되면 충전이 부족하거나 방전된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2~3년, 거리는 5만~6만km를 주행한 후에는 교환하도록 한다.

■ 디젤·LPG엔진은 예열해야 건강

1만km마다 오일과 오일필터, 에어클리너를 교체해야 한다. 많은 짐을 싣고 다니거나 빈번하고 짧은 운전을 자주할 때엔 5000km마다 교환해야 한다. 오염된 에어클리너는 엔진 오일 교환 시 교체하고, 연료호스는 잘 살펴봐야 한다. 디젤엔진과 LPG엔진 차량은 겨울철 시동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디젤엔진은 시동을 걸기 전에 예열하고 시동을 걸어야 하므로 특히 예열 장치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 LPG 엔진은 시동 후 예열이 필요하다. 예열 없이 운행하면 가속을 하여도 엔진이 힘이 없고 심한 경우 정지할 수도 있다. 또 운행 후 시동기 대신 먼저 LPG 스위치를 눌러 시동을 끄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자동차도 동상에 걸린다. 특히 겨울철 차량 고장이나 파손은 치명적이다. 추위가 닥지기 전 차량을 미리 점검해두면 건강하게 오래 탈 수 있다. <광주일보기자사진>

혹한 돌발상황 대처요령

겨울철엔 혹한으로 자동차 열쇠가 얼어 작동되지 않는 등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크게 도움이 된다. <자동차 열쇠가 얼어 작동되지 않을 때> 라이터를 이용해 열쇠를 토크 뒤 여러 번 열쇠 구멍에 넣어다 빼기를 반복하면 얼었던 내부의 기름이 녹아 정상 작동된다. 문을 열 때 열쇠가

유리창에 습기차면 히터·에어컨 동시 작동

열어 잘 열리지 않으면 문 가장자리를 주먹으로 '톡톡' 친 다음 열면 쉽게 열린다. 그래도 열리지 않는다면 문에 뜨거운 물을 붓도록 한다. <운행 중 유리창에 습기가 찰 때> 자동차에 있는 습기제거장치(디프로스터)를 이용한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히터만을 작동한다면 습기는 더욱 많이 차게 된다. 히터와 에어컨

은 별도의 장치로 같이 작동해도 무방하다. 통풍 조절기가 유리창을 향하게 하고 외부공기를 유입시키면서 히터와 에어컨을 동시에 사용하면 에어컨이 흡습 기능을 발휘해 습기가 쉽게 제거된다. <윈도우 와이퍼 얼어붙었을 때> 와이퍼가 밤사이 내린 눈으로 앞유리에 붙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더운 물을 뿌려주거나 시동

을 걸어 엔진을 예열한 뒤 히터를 작동시켜 완전히 녹인 후 작동하도록 한다. <주차 브레이크 너무 당기지 말라> 추운 날에는 브레이크 라이닝과 슈 사이에 물기가 남아있다. 얼게 되면 다음날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아 애를 먹게 된다.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 레버와 연결된 케이블이 끊어져 큰 고장이 나기 쉽다. 따라서 겨울철엔 주차 브레이크를 이용하는 대신에 기어를 1단에 넣어 두고 돌이나 나무토막 등으로 타이어를 받쳐두는 것이 좋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미 젊은이들, 기아차 쏘울 가장 좋은 차

미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쏘울'이 CNN머니가 선정한 '1만8000달러(약 2000만원) 이하 가격대의 가장 좋은 10가지 자동차'에 뽑혔다. CNN머니 인터넷판은 최근 쏘울이 박스형 소형 밴 차종 가운데 가장 근사하며, 세련된 기술이 돋보이는 외양은 두 가지 색을 배합한 내부 장식과 잘 어울린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1만3300~1만8495달러 가격대인 쏘울은 고속도로 주행 때 다소 놀라울 정도로 잘나가며, 가장 큰 혜택은 짐을 싣는 내부공간이 아주 넓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현대, 신차에도 '그랜저' 계속 쓴다

현대자동차는 준대형 세단 '그랜저' 후속 신차(프로젝트명 HG)의 차명을 바꾸지 않고 그랜저로 사용하기로 했다. 웅장하고 위대함을 뜻하는 그랜저는 1986년 7월 국내 시장에 첫선을 보인 1세대 모델에 붙여진 이래 이번 5세대까지 계속해서 쓰이게 됐다.



신차 그랜저는 '전통과 첨단기술의 절묘한 조합'을 콘셉트로, 최신 기술을 접목해 프리미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국내의 시장에서 새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현대차는 기대했다.

정통세단 대우 '로얄살롱' 중고 매물로

현대차 포니만큼이나 희귀한 정통세단 대우 '로얄살롱'이 중고 매물로 등장했다.



18일 자동차쇼 팜볼 보배드림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구모씨가 생산된 지 21년된 1989년식 검정색 정통세단 대우 '로얄살롱'을 매물로 내왔다. 이 차량은 전차식 연료분사 장치가 적용된 EFi 모델로, 1979cc 오토미션이 장착됐다. 독일 오펜사의 세니터 모델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대우 로얄살롱의 2세대 부분 변경된 것이다. 2L 급 가솔린엔진을 탑재하고, 당시로는 첨단 장비인 디지털 계기판·알루미늄 휠·전자식 파워윈도우 등이 적용됐다. 운행거리는 21년동안 7만7000km를 주행했다.

미쓰비시 광주전시장 1년만에 철수

일제강점기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시위 등으로 판매 부진을 겪은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에 개장 1년여 만에 철수했다. 이 전시장은 지난해 9월 지방에서는 두 번째로 개장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해방 65년이 넘도록 임금을 돌려주지 않는 미쓰비시가 광주에서 자동차를 팔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10월부터 208일간 1인 시위와 불매운동을 벌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CBS 역사50년, 미래50년 비전선포 기념”

광주 CBS 합창단

정기 연주회

2010년 11월 22일 (월) 오후 7시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광주 CBS



광주 CBS Meta Philo Cellisten



광주 CBS 권사 합창단



광주 CBS 소년소녀합창단



광주 CBS 여성 합창단

특별출연 : 김민기(국제신대 교수)